

순천 보선 무소속 단일화 수면위로

허상만 제안에 후보들 움직임 주목... 선거막판 변수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난립한 무소속 후보들 간 단일화 제의가 뒤늦게 나오면서 향후 선거 관세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그룹을 달리고 있는 무소속 후보들 간의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과과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선거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소속 허상만 후보는 20일 "무소속 후보들의 단일화는 민주당을 지지해온 시민들에게 사랑을 되찾는 일"이라며 "단일화 방법은 어떤 것이든 좋으니 만나서 이야기 하자"며 무소속 단일화를 제의했다.

이에 무소속 김경재 후보는 즉각 환영 성명을 내고 찬성을 입장을 밝히고 나서 다른 무소속 후보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허 후보 측 관계자는 "무소속 후보들 간 단일화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과의 단일화가 이뤄져야만 선거 승리가 가능하다"라고 밝혀 사실상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무소속 조순용·구희승 후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들 선두그룹의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아권연대 단일후보인 김선동 후보가 선거 막판 수세에 몰릴 수 있어 자칫 아권연대가 실패할 가



당구치는 손학규 후보
20일 오전 4·27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 어르신들과 당구를 치고 있다.

것도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 박과 함께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을 막판까지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정가 관계자들은 무소속 후보들간 단일화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거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다 대부분의 무소속 후보들이 내년 총선을 의식하고 있는 만큼 쉽게 중도 포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 때문이다.

한편, 아권연대 단일후보와 무소속 후보 등 모두 7명의 후보가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 순천 보선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김선동 후보와 무소속 조순용·구희승·허상만 후보 등 3~4명의 후보가 오차 범위인 ±3~4% 내에서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승리 장담할 곳 없다” 속타는 여야

재보선 예측불허 혼미속 전패 위기감

4·27 재보궐선거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3곳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등 주요 격전지에서 모두 오차 범위의 대혼전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전패의 위기감을 떨치지 못한 채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분당을 = 선거 막판까지 예측불허 접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판단이다. 일단 한나라당은 보수층의 응집력이 강화되면서 강세집 후보의 상승세가 탄력이 붙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오차 범위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졌다는 주장 아래, 막판 조직만 잘 관리된다면 신승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체적인 강원 민심 등 현장 반면, 민주당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손학규 후보가 1% 포인트 이내로 따라붙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선거 흐름 상 대역전극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 후보는 이날부터 당 최고위에도 참석하지 않고 분당에 머물며 막판 스퍼트를 할 예정이다.

◇김해 = 한나라당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엄기영 후보가 민주당 최문순 후보에 두 자릿대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면 조신스레 안경권에 접어들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승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막판 지지층 다지기에도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최문순 후보가 열세에 있지만, 상승세를 타고 있어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만 이뤄진다면 승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체적인 강원 민심 등 현장 분위기는 최문순 후보에게 유리하다

는 판단을 내리면서 도심은 물론 농촌 및 산간 지역 등으로 공략지를 넓혀가고 있다.

◇김해 = 아권 단일후보인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가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에게 아슬아슬하게 우위를 지켜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태호 후보의 추격세가 바람을 타고다고 보고 '인물 우위론'을 내세우면서 조직력을 동원,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가 하면 중앙당의 측면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참여당은 박병의 우세를 고수하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참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김해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로 유권자의 감성에 호소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장병완 '지방재정제도 개혁' 토론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장병완 의원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방재정제도 이렇게 바꾸자'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방재정 건전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성태 청주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원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방재정 확충 및 격차 완화'에 대한 연구' 제목의 주제발표를 한다. 또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우범기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장, 박인화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김성호 전국도시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 등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장 의원은 "지난해 성남시의 채무 지불유예 선언 이후 지방재정 약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날로 악화돼 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제도의 개혁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치 산출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우리나라 물가통제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계층별로 맞춤형 물가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이 의원은 "현재 통계청은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약 7700가구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체감하는 시장물가와 정부 발표 물가 간에 큰 괴리가 있다"며 "최근 식료품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식비지출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해도, 현재 정부에서는 소득계층별로 물가지수를 산출하고 있지 않아 서민들이 체감하는 고통보다 물가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정신병원 입원 요건 강화해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0일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입원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가족 등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환자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려면 사전에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2006년 국립서울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스스로 입원한 비율은 9.7%에 불과했다"며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에 일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용섭 "서민물가지수 별도 산출해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0일 "현실에 부합하는 물가지수 산출과 실효성 있는 물가대책 수립을 위해 서민 소비자물가지수를 일반 소비자물가지수와 별도로 산출하고, 소비자물가지수 품목별 가중



민주, 최대 승부처 분당乙 '올인'

손학규 상주... 소속 의원 등 연고자 맨투맨 접촉

4·27 재보선이 일주일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성남 분당을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인물론을 앞세운 '조용한 총력전'으로 손학규 후보가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를 거의 따라잡았다고 보고 선거 막판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조용한 1인 선거운동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물밑에서 당 차원의 조직적 '게릴라 선거'운동을 펴기로 했다.

그동안 거리·방문 인사 등에 치중했던 손 후보는 20일에는 처음으로 유세차량에 탑승했다. 이는 인구 밀집지역을 공략하는 데서 나아가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촘촘히 시민과

만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손 후보는 이런 차원에서 이날부터 당 대표로 주재해온 최고위원회도 불참하기로 하는 등 선거 전까지 분당에 상주한다는 방침이다. 당 차원에서는 도·시의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접촉 조직들이 경로당과 어린이집, 아파트 단지, 교회, 학원, 동 주민자치회 등을 돌며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도 보좌진, 당직자들도 인맥을 총동원해 축구·테니스 등 각종 동호회 및 직능단체 등의 친목모임 접촉에 눈을 돌렸다. '고학력-고소득'으로 대표되는 중산층 밀집지역인 분당의 특성상 여가 활동을 통한 모임이 활성화된 점을

파고들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분당을 유권자를 분석, 지역별 연고자를 의원별로 할당하고 '맨투맨 전화 접촉'을 시도하기로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날 "내 지역구인 목포 출신 인사가 분당에는 400여 세대가 산다"면서 "거기 내가 직접 전화해 캠페인 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투표를 높이기 위해 함께 민주는 투표를 높이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손 후보 측은 분당을 투표율이 35% 안팎이면 한나라당이, 40%에 가까울수록 민주당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분당 선거구의 유권자 중 67%가 40대 이하 계층인 점을 고려해 젊은층들이 투표장을 찾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4·27재보선 당일 근무시간 조정을"

민주, 경제단체에 요청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4·27 재보선의 투표를 제고를 위해 경제단체들을 상대로 선거당일 출근 연가와 조기퇴근 허용 등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 1명과 국회 재정위 및 지식경제부 소속 의원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은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공기업과 일반 기업에 선거일 탄력근무 실시 요청을 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 86명 가운데 10명이 최대 500만 원으로 책정한 최문순 강원지사 후보 후원금을 내지 않았다며 납부를 독촉, 눈길을 끌었다. /임동욱기자 tuim@

www.ah-english.com

원어민영어회화

압구정영어가 한다!

년수입 10만달러 이상인 가정이거나 자녀가 10만달러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영어회화**에 투자 해야합니다.

왜? 압구정인들(고소득자)은그렇게 하고있다!!
수강료는 리즈너를 합니다 (월15만원/매25분수업)

압구정 원어민전용 전화영어·화상영어
070-7433-0594

홈페이지제작은 기본! 모바일홈페이지 까지!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 상담 폭주!
(아이폰, 안드로이드 용)

상담문의 010-2637-9358
마블아이앤씨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KDB빌딩 1904호

공무원대출

공무원 대출

- ▶ 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금액 : 500만원~8,000만원
- ▶ 금리 : 년 5%~
- 대출과다나 연체로 대출이 어려운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개인회생, 신용회복 지원증서인 분 가능

직장인 대출

- ▶ 금액 : 500만원~5,000만원
- ▶ 금리 : 년 9%~
- ▶ 대상 : 3개월 이상 근무자 누구나 가능 (신용불량자 제외)

하나 1544-0936 011-705-2230
등록번호: 2011-3430067-25-5-00009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00-13(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부중개업 등록기간 : 대구 광역시 대표자 : 백영학
계1금융권이자율(최저 5.5%~13%(연체금리 18%~22%) 제2금융권이자율(최저 연11.9%~33%(연체금리 22%~44%) 제3금융권이자율(최저 연33%~44%(연체금리 44%))

남성 성기능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둔구어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류큐나프리언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4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 하시면 발기가 잘됩니다.

문의 전화 010-7770-8138 주문즉시택배 무료배송
농협 302-0136-6325-61 권옥연